

# “네타냐후, 가자 ‘완전 점령’ 결심”...이스라엘 ‘내분’

인질 억류지역 포함 군사작전 예고… ‘하마스 압박용 전략’ 시선도  
하마스 “협상 재개 위해 가자에 하루 250대 구호 트럭 반입” 요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기로 결심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 결심을 최근 예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에게 전하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작전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도 포함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군 훈련소에서 신병들에게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적을 섬멸하고 인질을 석방해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임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0개월간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이어오면서도 인질이 붙잡힌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는 생명 위협을 고려해 작전을 자제했다.  
한 이스라엘 관리는 휴전, 인질 석방과 관련한 회의가 소집될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가 ‘다음 단계’와 관련해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이스라엘 방문한 백악관 중

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휴전) 합의 도달 시 모든 인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서 모든 생존 인질의 석방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군사작전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와이넷도 총리실 관계자들을 인용해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에 대한 강공을 개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완전 점령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와이넷은 이 같은 분위기가 하마스를 압박하는 일종의 협상 전략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자미르 참모총장은 이날 저녁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선택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 작전이 생존 인질들의 생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료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내각 내 강경파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점령과 단호한 행동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면 참모총장은 정치권의 지시를 전적으로 따를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경계에 설치한 완충지대를 찾아 “하마스를 격파하고 인질들을 귀환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전쟁의 주요 목표”라며 “정치 지도부가 필요한

결정을 내리면 군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중론자인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은 엑스에서 “참모총장은 자신의 전문적인 견해를 정치권에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며 “군이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자미르 참모총장을 옹호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중재국을 통해 논의하던 ‘60일 휴전안’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병력 철수 범위 확대,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통한 구호품 배급 방식 철회 등을 역제한 하며 협상이 교착에 빠졌다.  
하마스는 최근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가자지구에 하루 최소 250대의 구호품 트럭이 반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 미 “한, 대북 방어·국방 지출 더 큰 역할 기대”

국방차관 “동맹 현대화 위해 협력”...정상회담 앞두고 선도적 부응 주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세계 동맹관계 변화 추진의 ‘키맨’으로 부상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평가하는 취지로 당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몰도텔이 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콜비 차관은 “우리와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며 동맹(한미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

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글에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북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은 대(對)중국 억제에 인-태지역 군사 역량을 더 투입해야 하니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 방어에서는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맡고, 그것을 위해 국방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 내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콜비 차관은 재야에 있던 시절부터 북한 핵무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차관이 된 뒤에도 자신의 소신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언급은 또 한국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2003~2008년) 때부터 추진해온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또 ‘국방지출’ 관련 언급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요구해 최근 동의를 얻어낸,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 지출(2035년까지 달성 목표) 기준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나토와 같은 ‘GDP 5%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기준을 아시아동맹에도 적용할 생각인데, 정상회담이 임박한 한국이 선도적으로 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이 5일(현지시간) 고연수씨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韓 정부, 美 강경이민단속 관심을”

한인단체, 탄원서 제출

미국 뉴욕한인회는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이민 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된 뒤 풀려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내 한인들의 기본 인권과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뉴욕한인회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단속 및 추방 조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영주권자 및 비자 심사 중인 합법적 체류자들까지도 법원 출석 과정에서 체포되는 등 한인 사회에 심각한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인회는 “특히 최근 성공회 김기리 신부의 딸인 고연수 씨가 비자 심사 관련해 법원에 출석했다가 현장에서 기습 체포돼 추방 절차에 들어간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한인 이민

자가 동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인회는 외교 채널을 통한 공식적인 우려 전달 및 협의 요청, 불합리한 추방 및 추방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보 공유, 대상자에 대한 법률 및 심리지원 방안 마련 등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뉴욕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의 이민 법정에 출석했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체포됐다가 4일 만인 지난 4일 밤 보석으로 석방됐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 비자의 동반가족비자(R-2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성공회 뉴욕 교구와 뉴욕한인회를 포함한 현지 단체들은 고씨 체포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해왔다. /연합뉴스

## ‘트럼프 관세’ 부메랑...美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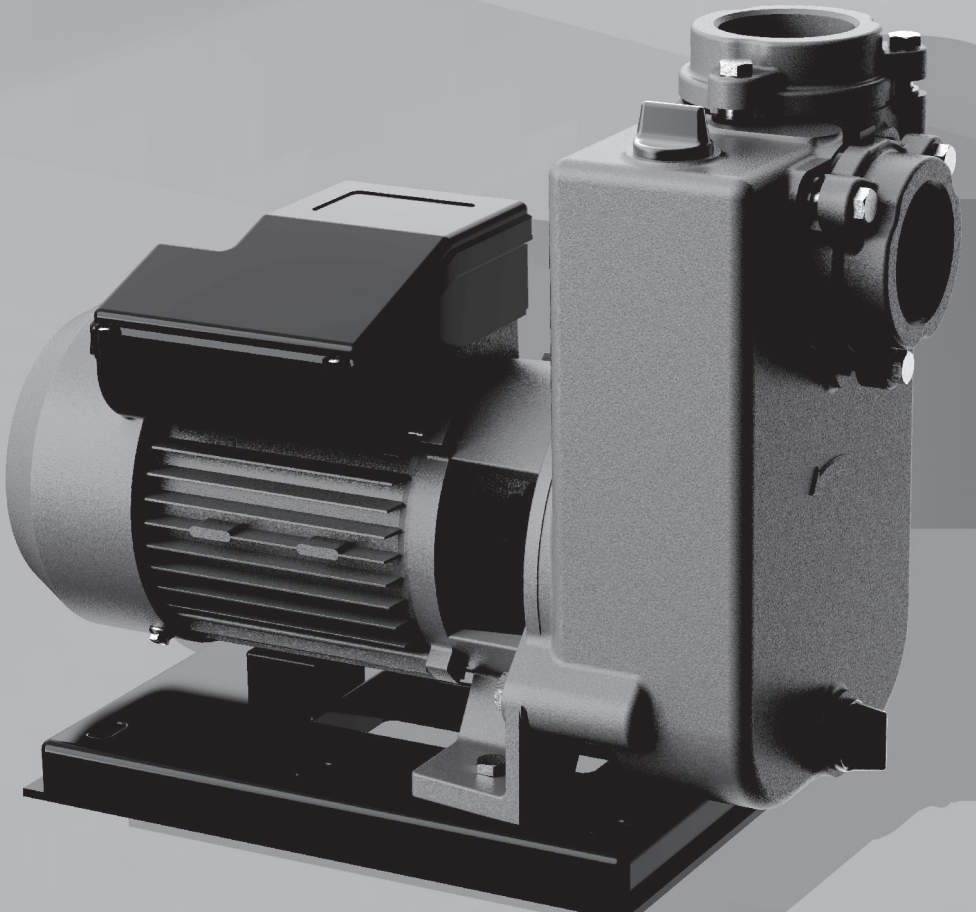
고용 악화·서비스업 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서비스업 연합이 부진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공급관리협회(ISM)는 7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50.8)보다 0.7포인트 하락한 50.1로 집계됐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1.1)도 밑돌았다.  
고용 사정이 뚜렷하게 악화한 가운데 관세 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 속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게 반영됐다.  
7월 고용 지수는 46.4로 전월 대비 0.8 포인트 하락해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여건 위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지수는 69.9로 전월 대비 2.4

포인트 상승, 가격 지수가 확대 국면에 있음을 나타냈다.  
PMI는 경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구매 및 공급 담당 임원들을 상대로 신규주문, 재고, 고용 여건 등을 설문한 결과를 지수화한 경기지표다. 50보다 크면 확대 국면을, 50보다 작으면 위축 국면을 나타낸다.  
서비스업이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업 연합 둔화는 미국의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ISM 조사위원회의 스티브 밀러 의장은 “고용 지수의 지속적인 수축과 가격 지수의 빠른 확장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문 대상 패널이 말한 가장 공통적인 주제는 여전히 관세의 영향이었고, 가격이 상승했다는 상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지진에 러 캄차카 화산 분화 수km 화산재 기둥 솟아올라

규모 8.8 강진 여파로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의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하며 수km의 화산재 기둥이 솟아올랐다고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는 이날 클류첸스카야 화산이 7km 높이로 화산재를 분출했으며, 전날에는 최고 9km의 화산재 기둥이 생겼다고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가 밝혔다.  
크라세닌니코프 화산도 6km 높이 화산재 기둥을 내뿜었으며 화산재가 동쪽과 남동쪽으로 160km를 이동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현재 캄차카반도에서 클류첸스카야, 크라세닌니코프, 베지마니, 캄발니, 카림스키, 무트놉스키, 아바친스키 등 화산이 동시에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